

아담한 종돈장 마련이 꿈인

한 문 수



고성지부장



무진양돈장 (고성군 회화면 녹명리)을 경영하고 있는 한문수 지부장은 혼자 있을 때는 언제나 사무실 벽에 붙어있는 농장 현황표를 응시하며 장래의 종돈장 설계에 대한 꿈을 그려본다.

지금부터 8년전, 10여년 동안 일해오던 공무원직을 사직하고 돼지를 길러보겠다는 욕심만으로 모든 30두를 가지고 양돈업에 뛰어 들었다는 한 지부장은 그동안 사양기술의 부족 및 불경기에 너무나 고생한 탓으로 10년은 더 늙었다.

생각하기조차 싫은 좌절을 두번이나 맛 봐야 했던 한 지부장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태만하던 생각이 금새 긴장된단다. '83년도에 돈단독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까닭으로 수 십마리의 돼지를 폐사시키는 우를 범했으며 지난해에는 파보바이러스에 또 한번 울어야 했다.

「양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양돈업에 뛰어드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충 돼지를 기르던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성패는 누가 더 과학적인 경영을 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이곳 지방에는 종돈장이 없어서 많은 양돈농가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한 종돈을 확보하여, 남부지방 양돈농가에 좋은 종돈을 공급할 수 있는 아담한 종돈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돈사를 최신시설로 바꾸어 자체검정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 지부장은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 앞에 나서기 싫다며 나중에 밝히겠다고 했다.

또한 인근의 농업고등학교에 실습장으로 이용토록 양돈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한 실습생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사업에도 바쁘지만 매일 2~3시간씩 지부 사무실에 상주하는 한 지부장은 금년 내로 지부회원을 50여명으로 확대하여 지부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했다.

부인 이정자 여사(40세)와의 사이에 3남을 두고 있는데 3형제 모두가 축산에 관심이 많아서 위로 둘은 축산을 전공하고 있다.

앞으로 대를 이은 종돈장 건설에 기대를 걸어 본다.